

“가을의 낭만으로”

Fall in Love...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 FOUR SEASONS PEACE CONCERT



Soprano 이종은



Baritone 김승유



Clarinet 안중현



Piano 김지은



Piano 안인모



Piano 김용희



Violin 윤혜림



Viola 이미자



Cello 박지화

“이 음악회는 전석 무료로 초대됩니다.”

일시\_ 2013. 11.8 (금) 7:30PM 장소\_ 천주교 춘천교구 춘천 윤교동성당

주최\_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 주관\_ 사계절 평화음악회 동호회



'사계절 평화음악회-가을'에  
초대하는 마음 글



+ 찬미  
예수

‘가을의 낭만으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낭만(浪漫)을 아시나요?  
당신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시나요?

‘낭만에 대하여’ 검색을 했더니, 최백호의 이름이 뜨더군요!  
낭만은 로맨스(Romance)를 한자로 옮긴 거더군요.  
로망스는 유럽에서 고전주의(클래식)의 형식적 요소를 반대하여 중세 로마어로 쓰여진  
작품들을 추구한데서 유래한대요. 낭만적인 예술경향에서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존중되고,  
고전적인 형식성은 경시 된대네요! ㅎㅎ 좀 딱딱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연인과의 달콤한 사랑’이나 그런 추억을 연상하는 뜻으로도 쓰나봐요.

‘만원의 감동’이 준비한 사계절 음악회 가을 공연의 주제는 ‘가을의 낭만으로...’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파아란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현실의 메마름에서 벗어나  
감미로운 음악의 세계에 폭 젖어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하게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클래식이면 어떻게 로망스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치유능력을 믿고 편안하게 우리의 지친 몸을 맡겨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어린 시절의 고향친구들과 그리운 사람들을 회상하다보면,  
인생이 참 살맛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가을 밤! 아름다운 단풍잎의 화사함을 뒤로한 채,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의 신비로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소중한 여러분 모두를 ‘가을의 낭만으로...’ 초대합니다!

“낙엽이 사라진 날! 헤메인 여자가 아름다워요!”(고은 작시 ‘가을 편지’ 중에서)

서기 2013년 11월 8일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 큰 머슴  
춘천성심병원 최원석 마리아넬로 신부

## PROGRAM

‘가을의 낭만으로...’

Claude Achille Debussy ..... Clair de lune(달빛)  
“L.75 Suite Bergamasque(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 Pf. 김용희

Bach-Gounod ..... Ave Maria(아베 마리아)  
Franz Schubert ..... Serenade(소야곡)  
▶ 앙상블 오름

이영조 ..... 엄마야 누나야  
Edvar Grieg ..... Peer Gynt Op. 23 'Solveig's Song'(솔베이지의 노래)  
Peer Gynt Suite No.2, Op. 55: IV(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 Sop. 이종은 & Pf. 김지은 & Cla. 안종현

Gaetano Errico Pennino ..... Pecche(왜?)  
한국민요 ..... 신고산 타령  
▶ Bar. 김승유 & Pf. 김지은

Ludwig van Beethoven ..... “Moonlight(월광)” Piano Sonata No.14 in c# minor  
▶ Pf. 안인모

Giacchino Antonio Rossini ..... Una voce poco fa(조금 전의 그 목소리...!)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세빌리아의 이발사)”중에서  
Adolf Schreiner ..... Immer Kleiner for Clarinet & Piano(점점 작아지는)  
▶ Cla. 안종현 & Pf. 안인모

Gaetano Antonio Rossini ..... En proie a' la tristesse(이 가슴에 드리운 쓸쓸함이며)  
오페라 “Le Conte Ory(오리 백작)” 중에서  
▶ Sop. 이종은 & Pf. 김지은

Giuseppe Verdi ..... Di Provenza il mar, il suol(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오페라 “La Traviata (춘희)” 중에서  
▶ Bar. 김승유 & Pf. 김지은

Wolfgang Amadeus 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 2악장. Adagio  
Johannes Brahms .....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25  
4악장. Rondo alla Zingarese  
▶ 앙상블 오름

\*다함께 부르는 우리 서정 가곡

이별의 노래 ..... 김성태



## Profile



### Soprano 이 종 은

- Brisbane, Queensland 국립음악원(Griffith대학교)수학 후 渡伊 | Milano, G.Verdi 국립음악원 정규과정 졸업 및 조교(Diploma)
- Valsesia Musica 국제음악콩쿨 성악부문 1위 수상 외 다수입상 | BeVoice Center에서 Canto Lirico 담당 지도(Milano) | Sichuan Conservatory of Music, Master-Class 지도(中國사천성) | Italia, Swiss, Austria, England, Belgie, Deutschland, Romania, | China, Japan에서 Concert, Festival 등 200여회 출연 | 국내외 오페라 La Boheme, Così fan Tutte, La Sonnambula, Rigoletto, 마술피리, 선구자 도산안창호에서 주역으로 출연 | KBS열린음악회, 다수의 시향, 교향악단, 관현악단 협연 및 출연
- 제22회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대상수상(2011)
- 사사 Luciana Serra, Giovanna Canetti, Rita Malaspina, 박기천
- 현재 : 한국국제대 외래교수, 경상대, 경남예고, 부산예고 출강



### Baritone 김 승 유 Pietro

- 이태리 Lucca "Luigi Boccherini"시립 음악원 졸업 | 이태리 Pescara Accademia 수석졸업 및 로마 Accademia "AIDOL", "ARAM" Diploma
- G.B.Viotti di Vercelli(Verdiano), San Remo, Roma 국제 성악 콩쿨 등에 입상 | 이태리 Torino Regio 가극장 심포니, 성남시향, 군산시향, 서울 내셔널, 서울 필, 경북도립 심포니 | 페스티벌 심포니, 미추홀 심포니, 코리아 심포니에타, 한국가톨릭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로마 Teatro Manzoni,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등의 주최로 오페라 토스카, 라 조콘다 | 카르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잔니 스캇키, 피가로의 결혼, 헨젤과 그레텔, 베르테르, 등에서 바리톤 주역 | 테너 Salvatore Puma, Nicola Martinucci, Lino Pulis 등과 협연 및 KBS 전국 순회 가을맞이 및 봄맞이 가곡의 밤 출연 | 제44회 서울 세계성체대회음악감독, 제45회 스페인 세계성체대회 초청 연주 바리톤 독창자 | 이태리 로마 유럽연합문화협회, Ferrara의 Chiesa Consandolo 및 스페인 Las Palmas 한인공동체 초청독창회 | 이태리 성악인 협회초청 나폴리 민요 연주회 등 5회의 Canzone Napulitanata 개최 | 로마시 주최 Concerto per anziani, Pescara, Sicilia concerto omaggio Leonardo Sciascia, Ferrara, Vercelli, Terni, Festival città Santangelo, San Remo Rosa 초청 송년 및 신년 페스티벌, 뉴욕 카네기홀 연주 등 이태리, 미국,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내외 수백여회의 연주회에 출연
- 수원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 현재 : (사) "아름다운세상" 예술감독



### Clarinet 안 종 현

- 한양대 음대졸업 | France paris Ecole Normal de Musique de paris Diplom | CNR de Saint-Maur 1등 졸업
- 음악협회 콩쿨 1등
- 부천시향단원 역임
- 현재 : 이화여대 동덕여대 수원여대 강릉원주대 출강 | 아미피에 클라리넷 콰르텟 리더 |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멤버 | 아시아예술학회 이사



### Piano 김 지 은

- 계명대 음대 피아노과 졸업 |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디플로마 및 합창지휘 수료 | Maestro Luca Gorla, Enza Ferrari 코스 수료
- 아레나, 로마, 아미 아카데미아 반주자 역임 | 소프라노 조수미 독창회 반주 및 이태리와 한국, 중국에서 유수 오페라 | 마스터 클래스, 녹음작업 및 수백여회의 음악회 반주 | 테너 Giuseppe Giacomini와 오페라 아이다, 일 트로바토레, 운명의 힘 작업 | 테너 Hose Cura와 삼손과 데릴라 작업 | 정명훈, 소프라노 Angela Gheorghiu, Vittorio Grigolo와 라 보엠 작업
- 현재 :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대 출강  
오페라단 음악코치 및 전문반주자로 활동 중



### Piano 안 인 모 Flora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 졸업 | 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피아노연주 박사
-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신인상, 음악교육신문콩쿠르 1위 | 음악저널 초청 신인연주회(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워싱턴디씨 주미대사관 초청연주, Cosmopolitan Clavier 시리즈 다수출연 | 금호아트홀 귀국독주회 등 국내외 다수의 독주회 및 앙상블 연주 | 한국피아노학회 심포지엄, 아시아그랜드피아노콘서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Piano-Telling Concert 독주회(세종채임버울)
- 현재 : 이화여대, 서울종합예술학교, 계원예술학교, 선화예중·고 출강  
한국 피아노 교수법 학회 부총무, 한국피아노학회, 한국 피아노 듀오 협회, 음악예술학회 회원

## Profile

### 앙상블 오름

바이올리니스트 윤혜림, 비올리스트 이미자, 첼리스트 박지화, 피아니스트 김용희는 그간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솔리스트로, 실내악 연주자로, 혹은 오케스트라 주자로서 꾸준히 연주 기량을 쌓아온 연주자들로, 이들은 미국 매네스 음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매네스 음대 동문음악회를 통해 호흡을 맞추었던 이들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음악적 소신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음악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오름(Orn)'은 제주도 방언으로 '산'을 의미하는 말이다. 산을 오르는 일은 무대를 준비하는 연주자들의 길과 많이 닮아있다. 너무 힘들어 오르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오르면 산은 우리에게 정상에서의 뿌듯한 휴식을 준다. 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긴 시간 스스로 독려하며 연습에 매진해야 하는 연주자들은, 정성들여 완성한 음악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과의 교감을 느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산을 오르는 길에 만나는 바람 한줄기, 풀내음, 잠시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 맡기고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의 달콤함에 이끌려 다시금 산을 찾게 되는 것처럼, 연주자들은 가꾸고 다듬어진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줄때의 그 꿈같은 순간에 이끌려 다시금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음악에 정진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음악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휴식과 감동으로 전달될 것으로 믿으며 앙상블 '오름'의 네 명의 연주자들은 올해 예술의전당의 성공적인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비상을 시작하였다.



Piano 김 용 희



Violin 윤 혜 림



Viola 이 미 자



Cello 박 지 화

### Piano 김 용 희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연세대 재학 중 도미 | 미국 매네스 음대 학사 및 석사 졸업 (실기장학금 수여)
- 쇼팽콩쿨, 초창 및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다수의 독주회 | 인천시향, 프라이밍오케스트라, 국립경향교향악단, 아쿠아나교향악단 등과 협연 | 솔로이스츠 93 멤버로 한국문예진흥원 후원 3개 도시 순회 연주 및 총 19회의 정기연주회 출연 | 한국피아노학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피아노문헌연구회 정기연주회 출연 | 두오 리사이틀 '화상' 시리즈, '20세기 로맨티시즘', 부산MBC 5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수의 두오 피아노 기획 연주회 출연
- 가톨릭대, 강릉대, 서경대, 성결대, 추계예대, 한세대, 한영신대, 고양예고 강사 역임
- 현재 :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이사, 솔로이스츠 93 멤버, 하트 피아노장학회 운영위원

### Viola 이 미 자

- 목원대 음악과 졸업 | 미국 매네스 음대 석사학위 취득
- 서울시향 단원 역임 |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수원여대 겸임교수 역임 | 강남대, 호서대 강사 역임 | 미국 카네기홀 다수의 실내악 연주 및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 수원시립합창단 협연 | 작곡동인 <델로스> 등 다수의 작곡연주회 참가
- 현재 : 서울로얄심포니 오케스트라, 세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원아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성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 Violin 윤 혜 림

- 선화예고, 연세대 음대 기악과 졸업 | 미국 매네스 음대 대학원 졸업 | 뉴저지 주립대(Rutgers) 박사과정 수료
- 중앙콩쿠르, 난파콩쿠르, 연세대 협연자 콩쿠르 우승 | 뉴욕 매네스 콘체르토 콩쿠르 우승 및 미국 Artist International 콩쿠르 입상 | 뉴욕 카네기홀 초청 독주회 및 예술의전당 주최 해외 유망신예 초청 독주회 | 뉴욕 링컨센터(Alice Tully Hall)협연 및 연세대 40주년 기념음악회 협연
- 코리아 심포니 수석, 인천시향 악장 역임
- 현재 : 연세대 음대, 홍신대, 선화예고 출강  
충남교향악단 객원악장,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라퓨트 오케스트라, 대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악장

### Cello 박 지 화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기악과 실기수석 졸업 | 독일 Wuerzburg국립대학 Fortbildungsklasse(석사) 및 Meisterklasse(최고연주자과정) |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석 졸업, 동 대학 실내악과정(Kammermusik) 이수
- 월간음악, 예원·조선일보 콩쿨 입상 | 오디션 통한 서울시향악단과 협연,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Jalta Symphony Orchestra, 폴란드 Krakow Capella Cracoviensis 오케스트라, 인천중구심포니, 김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이탈리아 국제음악축제 Montepulciano, Millenium Bayern 2000 현대음악축제 초청 오프닝 콘서트 연주, 나루타센테르 개관5주년 기념 문화축제 초청 콘서트,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초청 콘서트, 헤일리 음악축제, 세계적 오르가니스트 나지히킴과 앙상블 연주 | Trio "SCHELMEN"결성, 독일 여러 도시 수차례 초청 연주활동과 "독일 Deutschland Radio Berlin" 초청 공연 실황 독일 전지역 라디오생방송 연주
- 서울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 강사 역임
- 현재 : INSIEM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 밀알복지재단 첼로오케스트라강사, 서울스트링앙상블, 앙상블 6Xcello, 필렛 인첼리스트 및 경희대 한방음악과 출강



## PROGRAM NOTE

### — Clair de lune(달빛) / Claude Achille Debussy “L.75 Suite Bergamasque(베르가마스크 모음곡)”중에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인 드뷔시는 프랑스적인 정신과 감각을 바탕으로 길을 열었는데 풍부한 시의 영혼을 담은 표제음악적인 소품에서는 큰 매력이 되고 있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프렐류드(Prélude), 미뉴에트(Menuet), 달빛(Clair de lune), 파스피에(Passepied)의 4곡으로 이루어졌다. 드뷔시가 이태리 유학시절에 베르가모지방의 인상에서 제목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초기작품이며, 아름다운 선율과 색채가 풍부한 화음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던 그의 인상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달빛>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달빛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감미로운 선율과 화성이 세련되고 로맨틱하며, 꿈속에서처럼 밤하늘의 달빛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서정미가 넘치는 작품이다.

### — Ave Maria(아베 마리아) / Bach-Gounod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기도문으로서 3부분으로 되어 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루가1:28)인 첫째 부분과 엘리사벳의 인사(루가1:42)인 둘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청원기도는 1568년 교황 피우스 5세가 개혁한 성무일도서에 공식 기도문으로 포함되었다. 우리말로 번역한 기도문은 이렇하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곁에 함께 계시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 Serenade(소야곡) / Franz Schubert

슈베르트 연가곡집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 중 4번째 곡으로 슈베르트의 가곡 중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이다. 세레나데는 소야곡(小夜曲)이라고 번역되듯이, '맑게 갠'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sereno'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저녁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sera(세라)와도 관계가 있다. 이 곡은 연인을 그리는 노래인데 매우 감미롭고 기쁨이 있는 노래이며 최고의 세레나데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래는 성악곡이나 기악곡으로도 편곡되어 널리 연주된다.

그대 위해 불러보는 나의 노래여 조용한 이 숲속으로 그대여 오라  
달빛 아래 속삭이는 저 산봉우리 저 달빛 아래 그 누군가 멍들을 자  
잠내지 마오 잠내지 마오 저 깎깎 새 우는 소리 그대 듣는가  
달콤한 저 노랫소리 그대를 위한 것이로오...

### — 엄마야 누나야 / 이영조

<엄마야 누나야>는 우리의 서정적 애창곡으로 그 시의 첫출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향수어린 선율에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곡은 작곡가 이영조가 1962년 대학 시절에 쓴 서정가곡으로 정감 있는 시에 나타난 어휘들을 반주부에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주선율과 피아노가 엮길려 노래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독창곡과 기악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물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릴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 Peer Gynt Op. 23 ‘Solveig's Song’(솔베이지의 노래) / Edvar Grieg Peer Gynt Suite No.2, Op. 55:Ⅳ(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노르웨이 출생인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중에서 제4곡 솔베이지의 노래 (Solveig's Song)는 너무나 유명한 멜로디이다. 전곡중에서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것은 제3악에서 뿐이고, 제4,5악에서는 소프라노의 독창이 나타난다. 몽상가이며 허풍쟁이·난봉꾼이고 무법자인 페르귄트는 사랑하는 처녀 솔베이지의 애원과 어머니의 죽음도 그의 생활방식을 고치지 못하였고 자신의 꿈을 쫓아 미국·중국·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그가 많은 모험을 치른 뒤 얻은 것은 헛되이 버린 세월과 인생에 대한 환멸이었으며, 오랜 여정으로 지치고 늙은 몸으로 고향의 오막살이로 돌아오게 된다. 고향에는 솔베이지가 처녀로 늙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제는 백발이 된 솔베이지의 무릎에 엎드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평화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그는 이 작품을 토대로 관현악곡 《페르귄트 모음곡》을 작곡하여 노르웨이적 정서를 아름답게 그렸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또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밤일세 내 밤일세, 내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아! 그 특정한 봄을 참 많이 받고 참 많이 받고, 오! 우리 하느님 늘 보호하소서... 늘 보호하소서,  
쉴쉴하게 물로 늘 고대함 그 몇 해인가, 아! 나는 그리워라 널 찾아 가노라... 널 찾아 가노라

### — Pecche(왜?) / Gaetano Errico Pennino

Pecche는 "왜?"라는 뜻의 이탈리아 나폴리 방언으로서 표준어는 'Perche'이다. G.E.Pennino의 곡으로 떠나버린 연인에 대한 애절한 정과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다.

땀집 뒤통엔 새들이 노래하고 땅신도 노래했던 그 집엔  
땀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오... 어찌해 돌아오지 않나?  
나 그대 위해 내 어머니마져 버렸듯이 그대는 나의 젊은마져 배앓아 버렸오  
왜 그대는 돌아오지 않는거요?...

## PROGRAM NOTE

### — 신고산 타령 / 한국민요

원명은 어랑 타령으로서 "어랑 어랑"하는 후렴에서 온 것이고, 신고산타령은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요이며 가사의 첫머리인 "신고산이 우루루..."에서 나온 이름이다. 신고산은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는, 경원선의 한 역으로 역이 생김에 따라 기존의 고산 마을은 구 고산이 되고 역 부근은 신고산이 되었다 한다. 강원도 철원 이북부터 함경남북도 어느 곳을 가나 이 어랑 타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성창된 민요이다. 이 노래의 특징은 구성지고, 소박하며, 그 지방의 맛과 향토적인 미를 풍기는 민요로써, 원망스러운 푸념의 탄식과 함께 애조를 띠고 있으면서 후렴에 가서는 경쾌함과 해학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 — “Moonlight(월광)” Piano Sonata No.14 in c# minor / Ludwig Van Beethoven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c#단조, 작품 27의 2악장으로서 일명 “월광”으로 불린다. 이 제목은 시인인 Ludwig Rellstab이 이 곡의 1악장을 듣고 “스위스 루체른 호수의 달빛 아래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이라고 읊은 것이 발단 되었다고 전해진다. 1801년에 완성이 된 이 곡은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헌정되었다. 1악장의 템포가 'Adagio sostenuto'라는 사실은 꿈꾸는 듯이 느껴지는 나른한 선율이 지속되어지고 악장전체가 숨 막힐 것 같은 고요로 가득 차 있으며 선율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감상적이고 악장 전체를 통해 한 번도 감정의 기복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 고요한 호수 위에 창백한 달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락이 낭만성과 정열의 빛을 더하고 있다.

“온 세상은 고요히 자기 색을 감추고 사람들에게도 휴식을 청하나 청명하고 고요한 달빛만이 모든 사물에 빛난다.”

### — Una voce poco fa(조금 전의 그 목소리...!) / Giacchino Antonio Rossini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서

롯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1막 2장에 나오는 경쾌하고 밝은 아리아이며 여주인공인 로지나가 노래한다. 마드리드에서 우연히 마음에 꼭 드는 처녀 로지나를 본 알마비바 백작은 그녀와 사귀어 보기위해 세빌리아까지 오게 되지만, 의사인 바르톨로도 로지나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를 놓아주질 않는다. 백작은 어떻게 하면 로지나를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녀를 쟁취할까 고민하다가 마을의 재주꾼인 이발사 피가로에게 부탁하고 천재적인 피가로는 그를 도와서 멋진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게 된다. 로지나가 백작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오늘 저녁에는 클라리넷으로 그 선율을 노래한다.

### — Immer Kleiner for Clarinet & Piano(점점 작아지는) / Adolf Schreiner

독일 작곡가 아돌프 슈라이너(1847–1921) 작곡의 클라리넷 연주곡인 Immer Kleiner는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클라리넷이 가지고 있는 목가적 감성, 재기 발랄한 테크닉, 거친듯하면서도 해학적인 악기의 특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밴드나 피아노와 함께 연주되는 유쾌한 클라리넷 환타지로서 콘서트나 앙블락으로 자주 연주 되는 편이다. 작곡가는 “하현달이 떠있는 동안에 연주되어야 할 유쾌한 클라리넷 환타지”로 부제를 붙이고 있으며 점점 작아져가는 클라리넷을 하현달에 비유했다. 연주자가 연주하는 동안에 벨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마우스피스만을 가지고 연주가 끝나게 되니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함께 퍼포먼스 또한 유쾌하다.

### — En proie a' la tristesse(이 가슴에 드리운 그리움여) / Gaetano Antonio Rossini

롯씨니의 오페라 “Le Conte Ory(오리 백작)”은 세련되고 매력적인 명곡으로서 프랑스적인 색깔로 산뜻하게 작곡 되었다. 배경은 십자군 전쟁 시대인 13세기 프랑스 투렌 지방이며, 제1막중에 포르모티에 성의 백작 부인인 아델레가 부르는 아리아로써 타고난 바람둥이 오리 백작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자기가 점찍어둔 성주의 여동생인 백작부인 아델레를 유혹하고자 신통력 있는 은수자로 가장하여 동굴에 기거 하며 마을 여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고있다. 아델레를 유혹하기 위해 은수자로 위장하는 것 외에 그녀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수녀로 위장하기도 하는데... 한편 아델레의 사랑하는 아델레의 사촌이자 오리 백작의 하인인 이졸리에 역시 이 고장에 와 있는 상태... 거기다 오리백작의 가정교사 역시 가세하여 포복절도할 희극 오페라가 탄생 했다. 이 아리아는 아델레가 현명한 은수자로 위장한 오리백작을 찾아가 우울증을 고쳐 달라며 부르는 아리아이다.

### — Di Provenza il mar, il suol(프로벤자 네 고향으로!...) / Giuseppe Verdi 오페라 “La Traviata(춘희)” 중에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제2막 1장에서 알프레도의 아버지인 조르주 제르몽이 부르는 아리아로 비올레타가 떠난 뒤 시름에 잠겨있는 알프레도 앞에 나타나 아들을 달래며 비올레타를 잊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며 부르는 대표적인 아버지의 아리아이다.

저 프로방스, 네 고향 밝은 해와 바다를 아주 잊어 버렸나, 돌아가지 않겠네? 밝은 해가 쫓는 너의 고향집으로. 탄식 속에 잠겨있는 지난날의 그 햇빛, 너를 위해 또 다시 환한하게 빛나리, 저 하늘이 인도했네, 너의 들은 애비의 밝은 고향 모로나?  
너를 잃은 고향집 숲들속에 쌓였네, 너를 만난 나의 맘 소망 아직 남아있네, 너의 집의 정예를 아직 존중한다면 저 하늘이 나의기도 들어 주셨네.

### — Clarinet Concerto K.622 2악장. Adagio / Wolfgang Amadeus Mozart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K.622 2악장 아다지오는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 중 하나뿐인 클라리넷 협주곡이며 마지막 협주곡이기도 하다. 모차르트는 1791년에 이 곡을 완성하고 그해 10월에 첫 연주를 한 후 12월 5일 35세로 타계하였다. 이 곡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곡 중 하나로 꼽힌다.

### —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Op.25 4악장. Rondo alla Zingarese / Johannes Brahms

브람스가 남긴 3곡의 피아노 4중주 작품 중 하나이자 그가 쓴 첫 번째 피아노 4중주인데, 이 작품은 작곡자의 창작 제2기 첫번째 작품으로서 화성이나 리듬이 다양하며 피아노의 충실성과 현의 따듯함을 내면에 잘 융합하여 훌륭한 조화를 주고있다. 그 중 제4악장은 “집시 론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빠른 템포와 민속적인 느낌의 흥겨움이 가득하다.



www.만원의 감동.kr

모든 사람은 음악을 마음껏(무료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 태어날 때,  
만원(萬願: 모든 사람의 소원이 성취 되는 아름다운 세상)의 감동이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묵21,1)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꿈같은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민(主民: People)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을 음악에 적용해 봅니다.  
주민의 음악(Music of the People), 주민에 의한 음악(Music by the People),  
주민을 위한 음악(Music for the People)을 되찾읍시다.  
더 이상 거대한 공룡(현대 자본주의)에게 겁먹고 숨죽이면서 '죽은 음악'에  
자위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비참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은 특별한 날!  
내 생애에 처음 맞은 날!  
내 인생에 단 한번만 주어진 날!  
내 생애에 마지막 날!  
매일 매일 경이감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며,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할 줄 안다면,  
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며, 만원의 감동의 주민(主民)입니다

만원의 감동 홈페이지 : [WWW.만원의 감동.kr](http://www.만원의 감동.kr)  
만원의 감동 카페 : <http://cafe.naver.com/3removements>

FOUR SEASONS  
PEACE CONCERT

“가을의 낭만으로”

Fall in Love...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을 위한

FOUR SEASONS  
PEACE CONCERT

“이 음악회는 전석 무료로 초대됩니다.”

일시\_2013. 11.8(금) 7:30PM 장소\_천주교 춘천교구 춘천 윤교동성당

주최\_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 주관\_사계절 평화음악회 동호회

- [WWW.만원의 감동.kr](http://www.만원의 감동.kr) & <http://cafe.naver.com/3removements> -